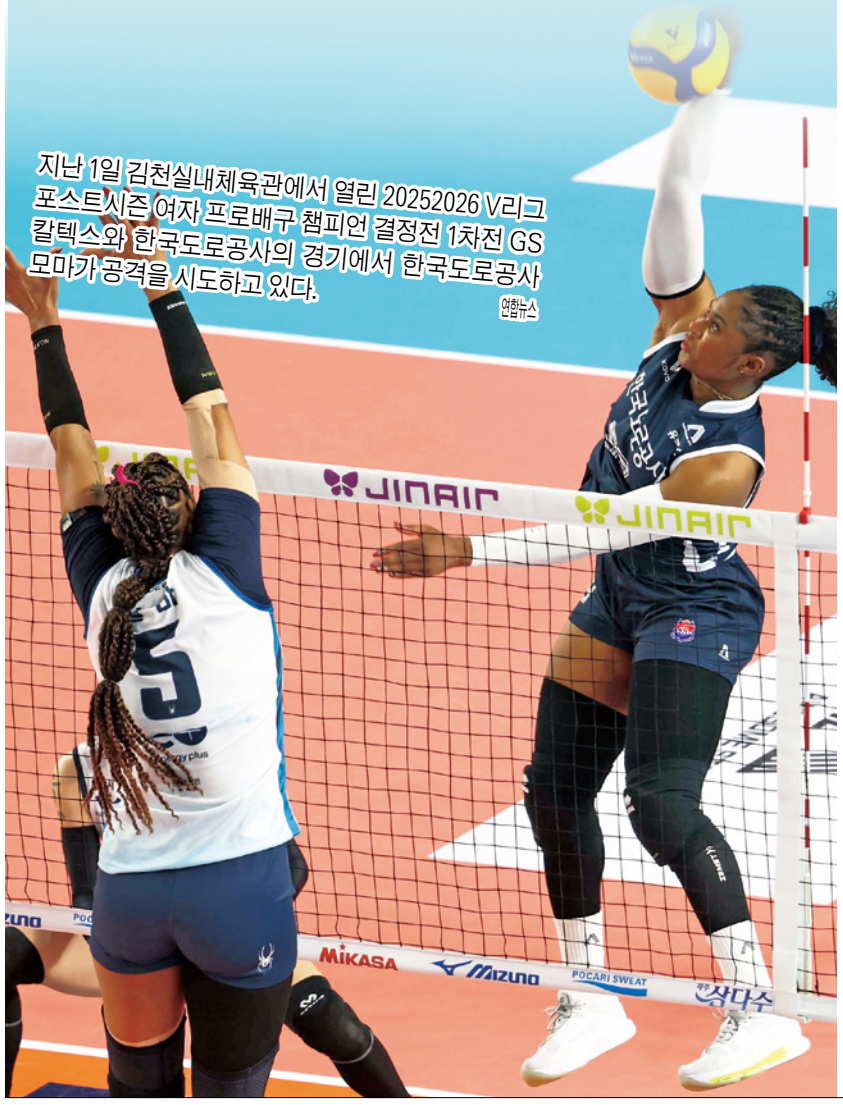
어수선한 분위기 탓 1차전 내준 도로공사

〈여자 프로배구〉



지난 1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V리그 포스트시즌 여자 프로배구 챔피언 결정전 1차전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의 경기에서 한국도로공사 모마가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챔피언결정전 1차전 패배
1차전 승=우승 사례 많아
감독 계약 해지 악재 작용
모마 분투에도 덜미 잡혀

여자 프로배구 정규리그 1위 김천 한국도로공사가 챔피언결정전 첫 경기에서 GS칼텍스에 덜미를 잡혔다. 도로공사는 지난 1일 김천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챔피언결정전(5전 3승제) 1차전에서 GS칼텍스에 세트 점수 1-3(23-25 25-23 15-25 22-25)으로 졌다. 역대 여자부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에서 1차전 승리 팀이 우승한 사례는 19번 중 11번(57.9%)으로, 도로공사는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봄 배구에서 연승하고 있는 GS칼텍스의 기세가 위력을 발휘한 한판이었다. GS칼텍스는 정규시즌을 3위로 마친 뒤 단판 준플레이오프에서 흥국생명을, 3전 2승제 플레이오프에서 현대건설을 2연승으로 제압하며 2020-2021시즌 이후 5년 만에 챔피언결정전 무대에 올랐다. 반면 도로공사는 챔프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 김종민 전 감독과의 계약 해지 결정 발표가 나오면서 선수단 전체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GS칼텍스 실바는 1세트에만 11점을 올리며 흐름을 주도했다. 16-20에서 실바의 퀵오픈이 분위기 반전의 발판을 마련했고, 주장 유서연의 서브 타임에 실바가 3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다. 21-21에서는 오픈 공격을 성공시켜 리드를 가져왔다.

도로공사는 2세트에서 김세빈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김세빈은 2세트에만 블로킹 득점 4개를 기록했는데, 모두 실바의 공격을 차단한 것이었다. 6-11 열세에서 김세빈의 블로킹을 기점으로 분위기를 바꾼 도로공사는 연속 득점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고, 20-20에서 모마의 퀵오픈으로 앞선 뒤 다시 김세빈이 실바를 막아내며 세트를 가져왔다.

그러나 3세트 들어 GS칼텍스는 권민지, 유서연, 최가은이 고르게 활약하며 주도권을 되찾았다. 실바의 어깨를 아낀 GS칼텍스는 20-10까지 점수를 벌려 승기를 굳혔고, 세트 막판에는 더블 스위치로 실바-안혜진을 빼고 레이나-김지원을 투입하며 운영의 폭도 넓혔다. 4세트 역시 중후반까지 16-18로 끌려갔으나 권민지의 2연속 득점, 모마의 범실, 실바의 블로킹이 겹치며 21-18로 단숨에 뒤집었다. 도로공사는 모마가 31득점으로 고군분투했지만 국내 선수 중 두 자릿수 득점자가 나오지 않은 점이 뼈아팠다. 두 팀은 같은 장소에서 3일 챔피언결정전 2차전을 치른다. 박준우 기자

아기사자의 데뷔전
삼성 신인 투수 장찬희
'침착함'과 '배짱' 빛났다



삼성 라이온즈 고졸 신인 투수 장찬희가 첫 등판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불펜으로 등판해 승리는 없었지만, 데뷔전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배짱은 이번 시즌 팀에 분명한 '소득'으로 남았다.

장찬희는 지난달 31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1대 5로 뒤진 6회,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베테랑 정수빈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며 첫 아웃카운트를 올렸다. 이어 후속 타자까지 범타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고, 7회와 8회에도 실점 없이 버텨내며 2이닝 무실점으로 데뷔전을 마쳤다. 3피안타와 1볼넷을 내주고도 실점을 허용하지 않은 점에서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였다.

경기 후 만난 장찬희는 담담하게 데뷔 소감을 풀어냈다. 그는 "시범경기와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다. 시즌에 들어오니 열기가 더 크게 느껴져 신기했다"고 웃었다. 팀이 연패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만큼 부담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그는 "경기 흐름상 꼭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올라갔다"며 "그 생각 하나로 던졌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남고 출신의 장찬희는 2026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자로 캠프 기간부터 꾸준히 가능성을 인정받으며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개막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날, 마침내 1군 무대에 섰다. 이날 6회부터 8회 도중까지 이어진 멀티이닝 투구도 인상적이었다. 그는 "필승조라기보다는 롱릴리프 역할을 맡을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했다"며 "그에 맞게 이닝을 길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부분은 흔들림 없는 경기 운영이었다. 위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스트라이크존을 공략하며 스스로 흐름을 끊어냈다. 이에 대해 그는 "멘탈이 강하다기보다는 순간순간 크게 흔들리지 않으려 한다"며 "좋은 타자들과 승부하는 게 오히려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권종민 기자 jmkwon@idaegu.com

경북 선수들, 아시안게임 다종목 포진 눈길

레슬링·요트·수구·유도에 이어 세팍타크로·수영에도 출전
현재 국대 13명…특정 종목에 쏠리지 않은 육성 체계 성과

경북도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레슬링·요트·수구·유도에 이어 세팍타크로와 수영에서도 국가대표로 선발되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향한 지역 선수단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경북도청과 경북체육회 소속 선수들이 여러 종목에서 고르게 대표팀에 이름을 올리면서, 특정 종목에 쏠리지 않는 저변과 육성 체계가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까지 경북 선수단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 인원은 총 13명이다. 종목별로는 레슬링 박현영, 요트 채봉진·신상민, 수구 윤시우·이시덕, 유도 김지수·허미미, 수영 조현주·김민섭, 세팍타크로 김형종·천동령·김지영·최지나가 포함된다. 경북체육회는 직장운동경기부 17개 팀을 운영 중이다.

세팍타크로에서는 경북도청 팀이 남녀 대표를 동시에 배출했다. 선수들은 제37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3월 21~25일, 고성국민체육센터) 겸 2026년도 제1차 국가대표 선발전을 통해 국가대표 및 후보선수로 선발됐다. 남자팀에서는 김형종(킬러), 천동령(테콩), 여자팀에서는 김지영(피더), 최지나(테콩)가 대표로 선발됐다.

수영에서는 기록과 선발이 동시에 부각됐다. 대한수영연맹은 3월 23~28일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2026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2026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을 개최했다. 경북체육회 수영팀 김민섭은 남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46초54로 4위를 기록했고, 결승 참가선수 중 기준기록(1분48초50) 통과자 가운데 선발되는 남자 계영 800m 대표팀 주전 멤버로 포함돼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확보했다.

경북도청 수영팀 조현주는 같은 대회 여자 자유형 200m 결선에서 1분58초00으로 우승하며 한국 신기록을 수립했다. 이는 조현주가 2025년 7월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25 예선에서 기록한 1분58초10을 8개월 만에 0.1초 단축한 것이며, 김서영이 2019년에 세운 종전 한국 기록(1분58초41)을 경신한 데 이어 기록을 다시 앞당긴 성과다. 조현주는 이번 우승으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무대에 다시 서게 됐다. 박준우 기자

농업법인(주)미산약초농장 유영대 이사
동화복지재단 무료급식소 자비의집에
생필품(506만원) 후원

농업법인(주)미산약초농장 유영대 이사는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을 위해 동아복지재단 자비의 집에 506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하였습니다.





이사 유영대

엄지왕 NAVER 미산약초농장 검색

문제성 피부 어성초로 만든 제품



원액비누세트(3P)
30,000원



500ml
엄지왕 샴푸
35,000원



200ml 300ml
말끄미 스킨 · 로션
스킨 35,000원
로션 35,000원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청정지역에 위치한 미산약초농장은 지하 170m 암반수를 이용하여 약초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환경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성껏 만든 저희 제품은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더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하여 최고의 제품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 미산약초농장 대표 농업인 김원수 -

제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구입문의는
상담전화 053-521-2900, 010-4141-2900